

누가공동체의 성령이해의 기원

김도현*

I. 서언¹⁾

누가-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²⁾는 누가-행전을 산출한 누가공동체가 ‘성령’을 중심으로 한 1세기의 기독교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³⁾ 이는 누가공

* 연세대학교 박사

- 1)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누가공동체와 성령의 역할” (연세대학교, 2007)의 일부를 편집, 정리한 것이다.
- 2) 누가복음서는 총 18회, 사도행전은 총 57회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 반복적인 성령 언급 외에도 중요한 사건과 주제에서의 성령의 등장¹⁾과 성령강림 사건의 반복적 기록, 그리고 누가가 다른 복음서의 자료들을 성령과 연관시켜 편집하여 강조한 것들을 통해 누가-행전에서의 성령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강조는 별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3) 부르스(F. F. Bruce)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the Acts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명명했으며 Frederick Fyvie Bruce, “Luke’s Presentation of the Spirit in Acts,” *Criswell Theological Review* 5 (1990):18-19, 엘하트는(A. Ehrhardt)는 사도행전이 ‘성령의 복음서’(the Gospel of the Holy Spirit)라고 말하였다. Arnold Ehrhardt, “The Construction and Purpose of the Acts of the Apostles,” *Studia theologica* 12, no. 1 (1958):67. 던의 경우 누가를 지칭하여 ‘성령에 사로잡힌 광신자’(the enthusiast in/for the Spirit)이라고 표현했다. J. D. G. Dunn, *Unity and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An Inquiry into the Character of Earliest Christian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7), 180-184참조.

동체는 ‘성령’이라는 신비한 존재에 대해 공동체의 독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이해가 공동체의 삶에 성령이 깊숙이 개입하게 만들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공동체가 성령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가지고 성령을 강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본 소론의 목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으로 누가공동체의 성령이해의 발현점(發現點)을 추적하는데 있다.

II. 기존 견해에 대한 반론

누가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이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가능성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주장하였다. 학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부분은 구약과 중간기 유대교⁴⁾, 당시 누가 공동체가 속해있었던 사회적 배경인 헬라적 배경⁵⁾ 그리고 영지주의적 배경⁶⁾이라 할 수 있다.

4)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에 영에 다양한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첫째, 계시와 지혜를 포함한 예언에 영감을 주는 영이며 둘째,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영이며 셋째, 개인과 공동체의 윤리적 종교적 새로움과 갱신을 가능케 하는 윤리적 영입과 동시에 넷째, 다가올 종말론적인 메시아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영으로써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필자의 논문 “누가공동체와 성령의 역할” 참조.

5) 헬라세계에서의 프뉴마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wind)을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으로 부는 힘으로써 폭풍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바람 또는 미풍 또는 수증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숨’(breath)을 의미한다. 유기적 생명체인 소우주에서 프뉴마는 인간과 동물이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이다. 셋째, ‘생명’(life)을 의미한다. 호흡이 생명의 표시라는 의미에서 프뉴마는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법에 의하면 프뉴마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누구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나 “죽음

그러나, 이러한 구약과 유대교 그리고 헬라적 배경에서 누가공동체의 성령 이해의 특징을 발견하려는 노력들은 다소 부차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누가공동체가 살고 있던 사회적 환경과 다양한 공동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누가공동체의 특별한 성령에 대한 강조와 관심⁷⁾의 태동은 직접적으로 유대교 또는 구약적 성령이해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유대교나 구약에서, 그리고 헬라인들의 삶속에서 성령은 그 삶의 중심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데 있다. 특히 1세기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율법과 성전⁸⁾’이었지⁹⁾ 성

은 생명의 영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 넷째, ‘영혼’(soul)을 의미한다. 프뉴마는 인간의 영혼을 나타내며 물, 땅, 불과 함께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네 요소 가운데 한 요소로 이해된다. 다섯째, 전이된 의미로서 ‘영’(Spirit)을 의미한다. 프뉴마는 신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상호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영을 가리킨다. 이는 영적인 실재인데 종종 추상적인 개념으로 신의영향력이나 영의 흥분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전이되어 사용되었다. 여섯째, ‘정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와 구별된다. 일곱째, ‘영감을 주는 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제사장들이나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어 의미로 사용되었다.

- 6) 영지주의의 영의 개념에 대해서는 E. Schweizer, “*πνεῦμα*,” 389ff 참조. 탈버트(C. H. Talbert)는 누가-행전이 영지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 졌다고 주장하면서 누가공동체와 영지주의적 연결점을 지적하였다. Charles H. Talbert, *Luke and the Gnostics; an Examination of Lucan Purpose* (Nashville,: Abingdon Press, 1966), 115. 하지만 영지주의적 영의 개념이 누가공동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의 영지주의에 대한 연구는 1세기에는 영지주의의 발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영지주의에 대한 연구사와 영지주의의 발생이 2세기 후반이나 3세기 초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조. Christoph Marksches and John Bowden, *Gnosis: An Introduction* (New York : T & T Clark, 2003).
- 7) Arnold Ehrhardt, “The Construction and Purpose of the Acts of the Apostles,” *ST* 12(195): 67.
- 8) 대제사장과 귀족계층으로 구성된 사두개파는 희생제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돈이 유통되고 관리되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장소인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경제와 관련된 성전역할에 대해서 Simon Goldhill, *The Temple of Jerusale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67 참조.

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성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록 구약적 배경에서 그 존재를 찾을 수 있었으나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은 역동적으로 신앙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즉, 1세기의 일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리 친숙한 용어는 아니었을 것이다.¹⁰⁾ 더군다나, 70년 이후 바리새파가 그 주도권을 잡기 이전에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를 중심으로¹¹⁾ 사마리아 그룹, 갈릴리파, 세레파, 게니스태파, 나사렛파 등 다양한 그룹들이 다양한 신학적 색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다.¹²⁾ 이 각 종파들의 성령이해를 파악하는 것¹³⁾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각각의 종파와의 누가공동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9)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대체사장과 귀족계층으로 구성된 사두개파와 율법적 그룹이었던 바리새파를 1세기 유대교의 중심세력으로 볼 때 ‘율법과 성전’이 유대인들의 핵심주제였다. 1세기 유대교의 각 종파의 구성과 특징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Eduard Lohse, 「신약성서 배경사」 박창건 역,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Anthony J. Saldarini, *Pharisees, scribes and Sadducees in Palestinian society: a sociological approach* (Edinburgh: T. & T. Clark, 1988); Joachim Jeremias,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한국 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88); Lester L. Grabbe, *An Introduction to First Century Judaism: Jewish Religion and History in the Second Temple Period* (Edinburgh: T & T Clark, 1996).

10) 특히나 중간기 유대인들에게는 예언자적인 계시의 위대한 시기가 지났다는 의식도 팽배했는데, 마지막 예언자들을 통한 경전의 결정과 함께 이스라엘에서의 예언자의 영감이 사라졌다는 신학적인 확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김희성, 「부활신앙으로 본 신약의 성령론」, 58-59.

11) 요세푸스는 70년 이전의 유대교의 주요그룹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라고 전한다. F. Josephus, *The Jewish War*, tr. and ed. by G. Cornfeld (Grand Rapids, Michigna: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II: 120.

12) M. Simon, *Jewish Sects at the Time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85-107.

13) 이러한 각 종파 중 어떠한 종파도 누가공동체처럼 성령의 공동체로 설명된 종파가 없다는 것은 유대교적 성령이해가 누가공동체의 성령이해의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에 큰 약점이라 하겠다.

없이 단순히 1세기 ‘유대교의 성령이해’를 누가공동체의 성령인식의 토양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¹⁴⁾

또한 1세기 당시 유대적 배경에서 그리고 당시 헬라적 배경에서 성령은 다소 낯선 개념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또한 사도행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εἶπέν τε πρὸς αὐτούς· εἰ πνεῦμα ἅγιον ἐλάβετε πιστεύ σαιτες; οἱ δὲ πρὸς αὐτόν· ἀλλ’ οὐδ’ εἰ πνεῦμα ἅγιον ἔστιν ἠκούσαμεν.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행19:2)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만난 어떤 제자들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어떤 제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세례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점을 볼 때(19:3) 이들이 유대인 세례요한의 제자들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추정일 것이다.¹⁵⁾ 유대적 가르침을 받아왔었던 유대

14) 사두개파는 ‘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행23:8), 사두개파를 포함하여 단순히 유대교의 성령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겠다. 사두개파의 영의 이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D. Daube, “On Acts23: Sadducees and Angels,” *JBL* 109/3 (1990): 493-497; B. Viviano, “Sadducees, Angels, and Resurrection (Acts23:8-9),” *JBL* 111/3 (1992): 496-498; F. Parker, “The Terms “Angel” and “Spirit” in Acts 23,8,” *Biblica* 84/3 (2003): 344-365 참조.

15) E. Käsemann, “The Disciples of John the Baptist in Ephesus,” in *Essays on New Testament Themes* (London: SCM, 1964), 136-148. 워더링턴은 세례요한은 성령에 대해 말할기 때문에(눅3:16) 이들이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세례요한의 제자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B. Witherington, *The Acts of the*

인이 아울러 헬라적 영향력 아래 있는 이방지역에 사는 자들로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성령’이라는 개념이 유대사회나 헬라사회에서 보편화되거나 또는 중요한 종교적 관심은 아니었음¹⁶⁾ 을 나타내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누가의 성령에 대한 인식과 그 이해의 특징이 구약과 유대교의 성령인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유대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드러난 성령의 다양한 측면들은 유대교적 전통을 유지하려는 누가공동체의 성령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누가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라는 별칭으로 불리 울 만큼 성령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동인(動因)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III. 오순절 방언체험: 누가공동체의 성령이해의 기원

누가공동체의 역동적인 성령인식의 시발점은 어디에서 부터였을까? 잠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단순히 유대교의 성령에 대한 신학적 가르침을 계승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가공동체에 있어서 ‘성령’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경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571. 하지만 세례요한의 말을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세례요한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오히려, 세례요한의 성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 그룹들은 성령이 그들의 관심 밖의 사항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6) 더군다나 예레미아스(J. Jeremias)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최악 때문에 성령은 소멸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당시 회당의 확신이었다고 말한다. J. Jeremias, 『신약 신학』 정광욱 역 (서울: 엠마오, 1995), 251-252.

험’ 후에 예수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정립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선경험’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전에 먼저 성령에 대한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누가공동체가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감지하고 이후에 그들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형성해 나가는 시발점 역할을 했을 것이다. 누가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경험’한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사도행전 2장은 처음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의 경험은 그것을 경험했던 초대 교회의 멤버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가공동체 당시의 누가공동체원들에게도 중요한 날로 기억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누가의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는 예루살렘 제자들이 비난에 대한 변호를 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ἐν δὲ τῷ ἄρξασθαί με λαλεῖν ἐπέπεσεν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ἐπ’ αὐτούς
ὡσπερ καὶ ἐφ’ ἡμᾶς ἐν ἀρχῇ.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했던 것) 같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행11:15)

이 말은 들은 예루살렘 제자들은 ‘처음 자신들에게 임한 것과 같다’는 말에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행11:18).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누가공동체에 있어서 ‘처음’에 성령 임함에 대한 기억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둘째, 그 기억은 공동체원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으며 셋째, 그 기억은 의심할 바 없이 오순절 날의 기억이었다는 것이다(행

11:45-46).¹⁷⁾ 정리하자면, 오순절 날의 사건(행2장)은 누가공동체에게 ‘성령을 처음 수여받은 날의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중요한 자신들의 유산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사도행전 2:1-41에서 묘사되는 오순절 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순절 날의 사건을 성령체험의 첫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던 누가공동체의 성령이해를 추적하기 위해서 오순절 날의 당시의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하는 일은 가장 유용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행2:1-41절에서 묘사되는 오순절 날의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은 무엇일까?’를 밝히는 작업은 누가 가지고 있었던 오순절 날에 관한 전승 자료들과 누가의 편집적 해석을 분리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소론은 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승 자료들을 보수적인 성향에서 역사적 기록으로 엮으려 했다는 점을 지지하며 아울러 그러한 자료들을 선택하고 구성함에 있어서 그의 신학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한다.¹⁸⁾ 이러한 점에서 사도행전 2:1-41는 역사적 전승기록과 누가의 편집적 해석이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2:1-41절 전체가 완전한 오순절의 사건이라는 완전한 전승으로 내려왔다

17) 마샬은(I. H. Marshall)은 누가가 이 이방인의 성령체험을 처음 성전에서의 유대인 회심자들과 비유한 것이 아니라 본래 예수 제자들의 경험과 비유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의 명확성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I. H. Marshall, *The Acts of Apostles* (Grand Rapid: Eerdmans, 1980), 197.

18) 누가 저작물의 역사성에 관한 개관적인 연구들은 다음을 참조. 유상현, 『사도행전 연구』, 35-66; 마크 포웰, 『누가복음신학』 배용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5-29;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14-18; Gerd Lüdemann, *Early Christianity According to the Traditions in Acts: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1-18.

고 할지라도 그 전승 또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fact)과 해석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실제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전승과 편집을 구분해 내는 것은 오순절 날에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¹⁹⁾ 지금부터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순절 날의 기록(특히 행2:1-4절의 성령강림보도를 중심으로)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해, 오순절 날의 보도를 사건과 해석으로 구분하여 실제적 사건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1. 오순절 사건의 실제(fact): 방언체험

1) 언제(2:1a): 오순절 날이 이르매 (Καὶ ἐν τῷ συμπληροῦσθαι τὴν ἡμέραν τῆςπειτηκοστῆς)

누가는 명확한 때를 오순절 날로 설명하고 있다. 이 오순절 ‘날’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전승 자료였을까? 이에 대해 뤼데만(G. Lüdemann)은 이 오순절 날이라는 시간에 대한 언급은 누가의 편집적 작업으로 간주하고 전승 자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가 전승과 편집의 구분 기준을 ‘누가의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본문은 편집적 작업이다’라고 설정하였기 때문이다.²⁰⁾ 그리고 그는 행2:1-4절에서 누가는 성령체험의

19) 뤼데만은 이미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 주석서를 발표하였다. Gerd Lüdemann, *Early Christianity According to the Traditions in Acts: A Commentary*, 1st Fortress Press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따라서 그의 견해에 대한 비평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20) 뤼데만은 누가가 자신이 가진 자료들을 주의해서 자신의 책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언어와 문체적 특성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누가 자신의 특별한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편집이라고 규

장면을 구약의 시내산 전승과 연관시키려는 신학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²¹⁾에 시내산 계약과 관련된 이 ‘오순절’날을 누가 고안했다고 말한다.²²⁾ 다시 말해, 루테만은 누가 성령체험의 모습을 구약의 시내산 현상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의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순절’²³⁾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편집적으로 삽입했다는 것이다.²⁴⁾ 던(J. D. G. Dunn)은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오히려 누가 부활현현 40일 전승을 선택한 것은 이미 형성된 오순절 날의 전승에 의해 결정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 ‘유대교의 유산’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로 인해

정한다. 그는 전승자료 또한 역사적 가치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기적적인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보기를 거부한다. 그는 전승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적으로 다른 자료와 비교가 될 수 있을 때 그 역사성을 인정한다. 그의 전승과 편집의 구분, 그리고 전승의 역사성의 근거에 대해서는 Gerd Lüdemann, *Early Christianity According to the Traditions in Acts*, 19-23 참조. 이와 유사한 견해에 대해서는 R. F. Zehnle, *Peter's Pentecost Discourse: Tradition and Lukan Reinterpretation in Peter's Speeches of Acts 2 and 3*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117-119; A. J. M. Wedderburn, "Traditions and Redaction in Acts 2:1-13," *JSNT* 55 (1994): 29-39.

21) *Ibid.*, 38-39.

22) *Ibid.*, 41-42.

23) 오순절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보릿단을 드리는 날로부터 날 수를 가리키는데 50 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 절기는 모세요경 시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유대교 삼대 주요 절기의 두 번째로서(신16:16참조), 솔로몬 시대에도 준수된 것으로 나타난다(대하8:13). 신구약 중간시대와 그 이후에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간주되었고 신약성경에는 세 번 언급되고 있다(행2:1; 20:16; 고전 16:8). George T. Montague, *The Holy Spirit: Growth of a Biblical Tradition*, 274-276. 오순절에 관해서는 M. J. Olson, "Pentecost," *ABD* 5 (1992): 222-223 참조.

24) 하지만 루테만은 오순절 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전승으로 인정한다. Gerd Lüdemann, *Early Christianity According to the Traditions in Acts*, 40.

결정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성취’에 대한 주제 역시 요엘과 예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지 시내산과 율법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며, 유대교의 시내산 율법전승은 2세기에나 형성되었다는 점²⁵⁾을 들어 헨헨에 대해 비판한다.²⁶⁾ 아울러, 초기 제자들이 유월절에서 시작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축제의 마지막 날인 오순절에서 최종 결말이 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성령의 수여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1-2장에서처럼 모여서 기도했을 가능성과 바울이 되도록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행20:16) 오순절이 예루살렘 크리스천들에게 의미 있는 축제로 여겨지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는 사도행전 2:1-13절의 역사적 사건들이 예수의 죽음 후 첫 번째 오순절에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짓는다.²⁷⁾

뤼데만의 ‘누가의 특정한 신학적 의도가 있는 본문은 편집’이라는 기준의 지나친 과격함은 차치하더라도, 헨헨 또한 던의 반박에 대해 적절한 답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오순절 사건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닌 집단적 경험이었으며 따라서 이 경험에 대한 전승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전승이었을 것임을 감안할 때 누가가 그 시기에 대해 마음대로 임의의 날짜를

25) 키스터메이커는 이 시기를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로 제시하였다. S. J. Kistemaker, *New Testament Commentary: Acts* (Grand Rapids: Baker Book, 1990), 75.

26) James D. G. Dunn, *Jesus and the Spirit : A Study of the Religious and Charismatic Experience of Jesus and the First Christians as Reflected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75), 140-141. 또한 Andrew T. Lincoln, “Theology and History in the Interpretation of Luke’s Pentecost,” *ExT* 96 (1985): 204-209 참조.

27) *Ibid.*, 141-142. 오톨(R. F. O’Toole)의 경우 오순절 사건을 다윗전승과 관련되어 설명함으로써 시내산 전승과 율법에 대한 전승이 오순절 단락과의 연관성을 부정한다. Robert F. O’Toole, “Acts 2:30 and the Davidic Covenant of Pentecost,” *JBL* 102 (1983): 245-258.

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의 베드로가 성령체험의 ‘처음’날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행11:15) 것은 이 성령체험에 대한 ‘시기’에 대한 개념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던의 견해를 강화하는 또 다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오순절’을 성령수여의 ‘역사적 인 시간적 배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누가, 어디서(2:1b): 모두 함께 한곳에 있었다(ἦσαν πάντες ὁμοῦ ἐπὶ τὸ αὐτό)

오순절날 사건의 경험자로서 제시되는 단어인 ‘모두 함께’가 행 1:1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모인 무리 약 120명을 의미하는 것은 별 의심의 여지가 없다.²⁸⁾ 이들이 모인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행1:13절의 ‘다락’(τὸ ὑπερῶον)과 바로 다음구절인 행2:2절의 ‘집’(τὸν οἶκον)인데, 이 두 가지로 유추해 볼 때 이들이 한곳에 있었던 장소가 제자들과 무리들이 유하던(행1:13) 개인의 집으로 보는 것에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보

28) E. von Dobschütz는 오순절 성령강림의 전승은 고전15:6절의 “500여 형제들에 대한 부활 현현”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이한 전승이며, 따라서 성령강림은 500여 형제들에 대한 그리스도 현현 사건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주요한 근거로 그는 첫째,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 둘째, 성령강림과 예수 부활현현이 둘 다 교회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길모어도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S. MacLean Gilmour, “Easter and Pentecost,” *JBL* 81 (1962): 62-66. 던은 이러한 견해를 반대하는데 첫째, 고전 15:6과 행2장은 수많은 제자들이 한곳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접촉점이 없고 둘째, 바울은 부활현현과 성령은사의 경험을 구별하고 있으며, 바울 자신이 행2장을 고전15:6의 다른 형태로 인식하지 않고 있고 셋째, 부활 현현과 관련하여 바울은 공동체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현현이 교회의 시작으로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James D. G. Dunn, *Jesus and the Spirit*, 144-146, Dobschütz의 견해는 144에서 재인용.

이다.²⁹⁾ 즉, 사건을 경험한 주체자들은 예수의 제자를 포함한 무리들 약 120명이며 그들이 유했던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오순절 날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예수의 제자 무리들이 자신들이 유하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나타내는 행2:1절은 역사 보도의 형식상 시간적 배경과 주체, 장소적 배경을 드러내는 사건 (fact)을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어떤 일이 있었는가?(2:2-4)

행 2:2 καὶ ἐγένετο ἄφνω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ἦχος ὡσπερ φερομένης πνοῆς
βιαίας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καὶ ἐπλήρωσεν ὅλον τὸν οἶκον οὓ ἦσαν καθήμενοι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행 2:3 καὶ ὠφθισαν αὐτοῖς διαμεριζόμεναι γλῶσσαι ὡσεὶ πυρὸς

그리고 불같은 갈라진 혀들이 저들에게 보여졌다.

καὶ ἐκάθισεν ἐφ’ ἕνα ἕκαστον αὐτῶν,

그리고 이것이 그들 각각위에 내려 앉았다

행 2:4 καὶ ἐπλήσθησαν πάντε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29) οἶκος 가 사도행전에서 성전을 의미하는 용례로 사용된 적이 한번 있긴 하지만(행 7:47) 여기서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후에 적대적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무리지어 성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브루스는 ‘그들이 앉아 있던’(οὓ ἦσαν καθήμενοι)이란 구절이 ‘성전’의 의미를 배제시킨다고 말한다. F. F. Bruce, *The Acts of the Apostles*, 114.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καὶ ἤρξαντο λαλεῖν ἑτέραις γλώσσαις καθὼς τὸ πνεῦ μα ἐδίδου
ἀποφθέγγεσθαι αὐτοῖς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주었을 때 그들이 다
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행 2:2-4절에서 누가는 성령강림 사건을 매우 시각적 청각적 언어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이 2:2-4절을 읽은 독자는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정보’를 얻도록 고안되어 있지만 실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실은 ‘성령을 받은’사건이 아니라 ‘방언을 한’사건이다. 다시 말해, 실제 일어났던 사건(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한 일)은 방언을 한 사실이지만 누가는 이를 성령강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2:2-4절을 ‘사건’과 ‘사건에 대한 해석(또는 묘사)’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해석) 행 2:2 καὶ ἐγένετο ἄφνω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ἦχος ὡς περ
φερομένης πνοῆς βιαίας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καὶ ἐπλήρωσεν ὅλον τὸν οἶκον οὗ ἦσαν καθήμενοι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예수의 제자들이 집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에 갑자기 소리가 있어 온 집을 가득 채웠다는 이 묘사에서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이 소리에 대한 비유적인 묘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리가 있었다’(ἐγένετο)고 표현하는 것은 특이하다. 만약 실제 당시 모든 제자들이 소리를 들었다면 당연히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소리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실제 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 몇몇의 개인적, 영적, 환상적 상태에서의 소리였음을 나타내며, 일반인 모두가 귀로 들을 수 있는 물리적인 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2:2절의 묘사는 해석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해석) 2:3 행 2:3 καὶ ὤφθησαν αὐτοῖς διαμεριζόμεναι γλῶσσαι ὡσεὶ πυρὸς
 그리고 불같은 갈라진 혀들이 저들에게 보여졌다.
 καὶ ἐκάθισεν ἐφ’ ἕνα ἕκαστον αὐτῶν,
 그리고 그것이 그들 각각위에 내려 앉았다

다음으로 누가는 불과 같은 갈라진 혀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졌고 그것이 그들 위에 내려 앉았다고 보도한다. 이 보도 역시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말하고 있지만 실제 모든 사람들이 실제 생물학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누가는 여기서도 제자들이 이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앉고 수동형인 ‘보여졌다’(ὤφθησαν)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의미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로 보았다기 보다는 영적으로, 개인적인 환상적 경험으로 보여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묘사 또한 실제 관찰 가능한 ‘사건’이라기 보다

는 해석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 행 2:4a καὶ ἐπλήσθησαν πάντε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은 인간의 눈으로 관찰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누가의 단정적 진술은 사건에 보도가 아닌 어떠한 현상에 대한 해석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진술은 누가의 해석인 것이다.

(사건) 행 2:4b καὶ ἤρξαντο λαλεῖν ἑτέραις γλώσσαις

그리고 그들이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해석) 행 2:4c καθὼς τὸ πνεῦμα ἐδίδου ἀποφθέγγεσθαι αὐτοῖς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주었을 때

행 2:2-4절 중 유일하게 객관적인 관찰 가능한 사건은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주었을 때’(2:4c)라는 부연적 설명은 이 사건에 대한 누가의 해석적 묘사인 것이다. 실제로, 오순절 다락에서의 사건 후에 이 외부의 사람들에게 이슈화 되고 문제시 되는 일은 이들이 ‘방언’을 한다는 것이었다(“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들이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2:6). 다시 말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관찰 가능한 사건은 바로 이 ‘방언’을 한다는 것이었으며 오순절 날 일어났던 실제 ‘사건’은 바로 ‘방언을 말한’사건인 것이다. 초

기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어느 집에 있을 때 그들이 기도 중이었던지 아니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³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된 현상이다. 이 이상한 경험에 대해 당시 초대교회는 적절한 이해와 해석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2. 오순절 사건의 해석(interpretation): 성령강림

위에서 살펴본 오순절 사건을 실체와 해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 건	사건 해석
2:1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	2:2-2:4a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같은 갈라진 혀들이 저들에게 보여 졌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 각각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2:4b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2:4c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주었을 때

이 독특한 묘사와 해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유대교의 오순절 이해와 시나산 전승과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이 성령강림의 묘사에 대해서 마샬(I. H. Marshall)은 “이 상징은 구약의 신의 현현을

30) 행1:14절을 유추해 볼 때 이들이 기도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의 다른 방언기사에서는 기도 중에 방언을 경험한 것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행 10:44; 19:6).

연상시킨다(욥37:10;에스겔13:13). 바람은 성령과 같이 신의 현현의 표시이다. 두 번째 상징인 불은…또한 구약, 특히 시내산에서의 신의 현현(출19:18)을 연상 시킨다”라고 말하면서 누가가 구약의 상징을 사용한 것으로 설명한다.³¹⁾ 벤더캄(James C. Vanderkam)은 오순절 묘사의 유대적 배경에 대해서 구약과 희년의 서(The Book of Jubilees), 사해 사본 등과의 병행구절에 대해서 연구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사도행전 1-2장의 모든 요소들이 미드라쉬적 시내산 전승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사도행전 1-2장의 주제를 위해 신약성서만의 독특한 요소들도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은 사도행전 1-2장안에서 누가가 시내산과 축제의 주들에 관한 유대적 전승들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계시의 활동과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적 능력들로 준비됨으로써 새로운 탄생을 부여 받는다.³²⁾

이처럼 시내산 전승과 오순절 사건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학자들은 ‘바람’, ‘소리’, ‘불의 혀’등의 표현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고

31) I. H. Marshall, *The Acts of the Apostles*, 68.

32) James C. VanderKam, “Covenant and Pentecost,” *Calvin Theological Journal* 37, no. 2 (2002): 253. 존슨(L. T. Johnson)도 이와 유사한 점을 지적했었다. 존슨은 그 이유로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유대교에서 불은 율법의 상징으로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 둘째는, 필로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수여는 불꽃 속에서의 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누가가 예수의 이야기를 위해 모세의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L. T. Johnson, *The Acts of the Apostle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2), 46.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구약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방언’과 ‘성령’을 연결시키려는 문학적 장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현은 행 2:1-4절의 묘사적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바람 같은 소리, 다른 방언’으로 표상되는 청각적 언어 와 ‘불의 혀’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시각적 언어를 이야기 속에 교묘하게 배열하고 통합하여, 결국 감각적 이미지의 강화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묘사법이다. 이러한 시청각적 이미지와 언어의 배합이 오순절 사건의 장면을 보다 다채롭고 생생하게 만든다. 저자가 이러한 상황을 그림 그리듯 묘사하여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예고되던(눅 24:49, 행 1:5) 성령의 강림이 명백한 가시적, 객관적 현상으로, 그것도 매우 드라마틱한 감각적 장면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내보이는’것이다.

이러한 묘사가 ‘객관적 현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정확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본문이 ‘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방언 현상’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라는 사실이다.

오순절 날 갑작스런 예수의 제자들의 방언현상 체험은 이에 대한 시급한 해석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낯선 현상에 대해 당시 경험자들은 그 해석에 있어서 그리 고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예수의 성령에 대한 약속(행 1:1-4, 8)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한 방언경험은 바로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이라는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단정적으로 방언

경험을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말하게 하였다’식으로 말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방언 현상’이 ‘성령강림’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객관화시키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성령에 대한 묘사적 특징은 바로 이점에서 찾을 수 있다. 2-3절의 묘사에서 사용되는 상징적인 도구는 바람, 불, 소리, 혀라는 단어이다. 그런데 바람과 불은 각각 소리와 혀라는 것을 꾸며주는 역할로 쓰이고 있다(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즉, 실질적으로 묘사의 초점은 소리와 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소리와 혀라는 요소가 방언현상 시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이다. 방언현상이 다른 말을 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소리와 혀는 방언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령강림에 대한 묘사가 있어서 ‘방언현상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를 묘사함에 있어 방언의 요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성령임재와 방언현상을 같은 이미지로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소리와 혀의 이미지는 성령임재와 방언현상의 공통적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둘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한다. 이로써,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리와 혀가 동반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소리와 혀의 현상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성령임재를 묘사하는데 쓰인 ‘혀’(γλώσσα)가 ‘방언’(γλώσσαίς)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지 통합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³³⁾ 즉, 이러한 이미지 통합의 노력은 성령임재와

33) γλώσσα는 신체의 일부인 말하는 기관을 나타내는 말의 뜻과 함께 언어, 말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G. Dautzenberg, “γλώσσα,” *EDNT* vol. I 251-255. 누가에게 있어서 이러한 2중적 의미를 표출할 수 있는 이 단어의 특징은 성령과 방

방언현상을 밀접히 연관시키고, 그로 인해 성령이 임하였다는 신학적 해석을 실제 있었던 방언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성령임재의 객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IV. 결어

누가공동체의 성령이해는 구약이나 유대교 또는 당시의 사상적 배경을 근원으로 발달했다기 보다는 누가공동체가 겪은 독특한 체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 2:1-4절의 최초의 성령강림에 대한 누가의 묘사는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혼합되어 있는 묘사이다. 이를 구분하면 실제 오순절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생했던 사건은 ‘방언 말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신비한 그리고 전에 없었던 ‘방언 말함’이라는 공동체의 경험에 대해 누가공동체는 적절한 해석이 필요했고 이를 ‘성령 강림’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누가공동체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에 누가의 성령이해가 ‘방언 현상’이 동반하는 다양한 요소 즉, 신비, 예언, 선포와 같은 요소들과 연관되어 발전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누가공동체, 성령이해, 기원, 방언, 오순절 성령강림

Lukan Community, The Holy Spirit, Glossolalia, Origin, Pentecost day.

언의 이미지 통합을 위해 사용하기 적절한 단어였을 것이다.

Abstract

The Origin of Lukan Community's Understanding about the Holy Spirit.

Kim, Do-Hyun Ph.D.

Yonsei University

What made Lukan community to have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On this question, many scholars have concentrated on the social and religious background of Lukan community such as Old Testament, Judaism, Gnosticism, and Hellenism. However, Acts 19:2 shows us that most of people who lived under Jewish and Hellenistic background in the first century did not have specific concept of the Holy Spirit (and he said to them,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And they said to him, “No, we have not even heard whether there is a Holy Spirit.”). So, we can not easily accept that Luke’s understanding about Holy Spirit was derived from directly background of Old Testament or Hellenism. This article is an exegetical study of Acts 2:1-4 that is the key text, I believe, to find the origin of Luke’s understanding on the Holy Spirit.

The main reason or origin to have specific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to Lukan community was special ‘experience’ that they had on the day of Pentecost (Acts 2:1-4). What happened on that

day? Acts 2:1-4, Luke's first description about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s composed with fact and interpretation. The only fact that disciples of Jesus experienced actually on Pentecost was that 'they spoke in other tongues'(Acts 2:4b).

When disciples had experience of speaking tongues, they must have been very surprised. After that, they must have needed theological explanation on this mysterious experience. And Eventually, they must have interpreted speaking Glossolalia as the result of fullness of the Holy Spirit naturally because they were waiting for the promise of Jesus that "you sha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Acts 1:5). The Lukan community's pneumatology was started and affected by this interpretation and developed on the basis of this interpretation.

참고문헌

- Bruce, F. F. "Luke's Presentation of the Spirit in Acts." *Criswell Theological Review* 5 (1990):15-29.
- Daube, D. "On Acts23: Sadducees and Angels." *JBL* 109/3 (1990): 493-397.
- Dunn, James D. G. *Unity and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 An Inquiry into the Character of Earliest Christian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7.
- _____. *Jesus and the Spirit : A Study of the Religious and Charismatic Experience of Jesus and the First Christians as Reflected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75.
- Ehrhardt, Arnold "The Construction and Purpose of the Acts of the Apostles." *Studia theologica* 12, no. 1 (1958): 45-79.
- Fitzmyer,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2 vols, Anchor Bible ;. Garden City, N.Y.: Doubleday, 1981.
- Gilmour, S. MacLean. "Easter and Pentecost." *JBL* 81 (1962): 62-66.
- Goldhill, Simon *The Temple of Jerusalem*.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 Grabbe, Lester L. *An Introduction to First Century Judaism: Jewish Religion and History in the Second Temple Period*. Edinburgh : T&T Clark, 1996.
- Johnson, L. T. *The Acts of the Apostle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2
- Jeremias, J.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한국 신학 연구소 번역실 역.

-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_____. 『신약 신학』 정광욱 역. 서울: 엠마오, 1995.
- Käsemann, E. “The Disciples of John the Baptist in Ephesus,” in *Essays on New Testament Themes*. London: SCM, 1964.
- Kistemaker, S. J. *New Testament Commentary: Acts*. Grand Rapids: Baker Book, 1990.
- Lampe, G. W. H. “The Holy Spirit in the Writings of St. Luke.” in D. E. Nineham, *Studies in the Gospel: Essays in Memory of R. H. Lighfoot*. Oxford: Basil Blackwell, 1955.
- Lincoln, Andrew T. “Theology and History in the Interpretation of Luke’s Pentecost.” *Expository Times* 96 (1985): 204-09.
- Lohse, Eduard 『신약성서 배경사』 박창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 Lüdemann, Gerd. *Early Christianity According to the Traditions in Acts : A Commentary*. 1st Fortress Press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 Markschies, Christoph, and John Bowden. *Gnosis: An Introduction*. New York: T & T Clark, 2003.
- Marshall, I. Howard. *The Acts of the Apostles*, Bojer, Johan. Sheffield: JSOT Press, 1992.
- Montague, George T. *The Holy Spirit: Growth of a Biblical Tradition*. New York: Paulist Press, 1976.
- Talbert, Charles H. *Luke and the Gnostics; an Examination of Lucan Purpose*. Nashville: Abingdon Press, 1966.
- O’Toole, Robert F. “Acts 2:30 and the Davidic Covenant of Pentecost.”

JBL 102 (1983): 245-58.

Parker, Floyd O. Jr. "The Terms "Angel" And "Spirit" In Acts 23,8."

Biblica 84, no. 3 (2003): 344-65.

Powell M, 『누가복음신학』 배용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Saldarini, Anthony J. *Pharisees, scribes and Sadducees in Palestinian society: asociological approach*. Edinburgh: T. & T. Clark, 1988.

Simon, M. *Jewish Sects at the Time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VanderKam, James C. "Covenant and Pentecost." *CTJ* 37, no. 2 (2002): 239-54.

Viviano, B. "Sadducees, Angels, and Resurrection (Acts23:8-9)." *JBL* 111/3 (1992):496-498.

Wedderburn, A. J. M. "Traditions and Redaction in Acts 2:1-13." *JSNT*, no. 55 (1994): 27-54.

Witherington, Ben. *The Acts of the Apostles :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1998.

Zehnle, R. F. *Peter's Pentecost Discourse: Tradition and Lukan Reinterpretation in Peter's Speeches of Acts 2 and 3*.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김희성, 『부활신앙으로 본 신약의 성령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유상현, 『사도행전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